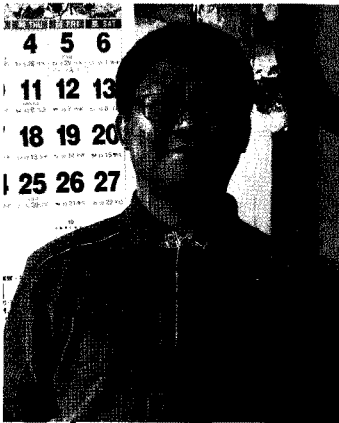


“희망의 증거로 우뚝 설 것”



취재지원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김도한(43)씨

“직업재활프로그램 확대 돼야”

최근 산재병원 등 산재관련 기관을 보면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프로그램들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업재활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성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은 수십 명 중 단 한 명만 성공을 해도 이 프로그램은 가치있는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본인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산재근로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6명의 산재근로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업무 차원에서만 지원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을 다져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개의 가정을 도와준 것이지요. 즉 저 한명을 교육시킨 것이 이렇게 큰 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렇듯 재활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한 사람만의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디 더욱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주택가의 한 세탁소. 겹겹이 지어진 빌라촌에 가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외진 곳에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뻑뻑이 들어찬 세탁물, 간간히 증기를 뿜어내는 다리미, 쉼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등 아무리 둘러봐도 여느 세탁소와 다를 바 없는 곳이다. 그런데 왜 손님들로 항상 북적이는 것일까? 그 해답을 손님들이 알려주었다. 바로 이곳 사장님 때문에 온다는 것이다.

이곳 사장님은 젊은 시절 산재를 입어 왼손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장애를 이겨내고 세탁과 수선실력에선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술자가 됐다. 그를 만나 산재를 딛고 다시 세상에 우뚝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왼손을 잃다

2001년 김도한씨는 경북 구미에 소재한 모 사무자동화기기 생산공장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그가 맡은 일은 사출기로 반제품을 생산하는 일



이었다. 어느날 작업중 갑자기 사출기에 문제가 생겼다. 찍어낸 반제품이 기계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럴 때에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직접 손으로 반제품을 빼내야했다. 다소 위험이 있는 일인 했지만 측면 문을 열면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사출기였기에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측면 문을 열고 걸려 있는 반제품에 손을 댔다. 그때였다. 당연히 멈춰있어야 할 기계가 작동을 했고, 순식간에 그의 왼손이 기계에 찍혔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손을 빼내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벌어진 후였다.

다시 찾은 희망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직후부터 1년간 대수술을 수차례 시행한 끝에 그는 3개의 손가락을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중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은 엄지밖에 없었고, 새끼손가락과 약지는 움직이기는커녕 감각도 거의 없었다. 서른 셋 한창 나이에 평생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살 시도만 2번을 했다. 그러나 명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저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산재 종결처리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대기실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며 공단의 홍보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직업재활훈련원이 소개될 때 희망의 전율이 흘렀다. 그길로 그는 안산직업재활훈련원에 입소 했다.

“노력은 장애를 이긴다”

의상디자인과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세탁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얻어 2006년 6월 시흥에 작은 세탁소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연금에 의지해 사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장애라는 이유로 못할 것이라고만 보는 세상의 편견도 깨고 싶었다. 매일 3~4시간씩을 자며 일에 매달렸고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이른 새벽 가장 일찍 문을 여는 그에게 동네 사람들은 ‘새벽 도깨비’라는 별명까지 지어줬다. 이런 노력 끝에 그의 세탁소는 번창을 거듭했고 분점도 여러 곳이 생겼다. 현재는 자신의 기술과 성공노하우를 세탁소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산재근로자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점포를 주변의 불우한 이웃이나 산재근로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김도한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Again’이다. 그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실패와 장애를 두려워말고 과감히 ‘다시’ 시작하라는 그의 말이 보다 많은 산재근로자들의 마음에 전달되길 기원해본다. ☺